



NO.2174

하늘 마음



조토 디 본도네의 <주님 봉헌>



2025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말라 3, 1-4

화답송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입니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제2독서

히브 2, 14-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 22-40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준주성범

헛된 희망과 교만을 피함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준주성범〉은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무르며 그 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 눈에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지향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도 믿지 말고 어떠한 현세의 기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2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도 말고, 권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혹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타고난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結合)¹⁾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1)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살이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이 남만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아서,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 아래에 여러분을 둔다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한 사람 위에도 높게 두면 커다란 해를 입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글은 《준주성범》(©윤율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55, 2021)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1.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은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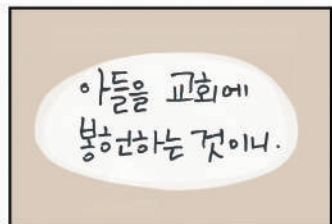
2.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талан트를 3가지만 적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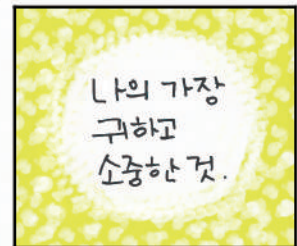
3.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 중 교만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겸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날으는 C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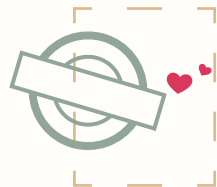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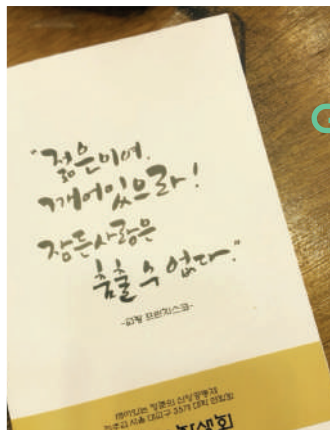


사랑은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신비



서울대교구 대학교사목부를 담당하던 때, 'G.N.Y(God Needs You)'라는 봉사활동 단체가 있었어요. 아이 돌봄, 유기견센터 방문 등 여러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유'라는 친구를 간호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며 온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온유는 당시 20대 친구였는데 사고로 인해 폐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펌프질을 해서 폐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했죠. 온유가 교회를 다니던 친구여서 평소에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했는데 성탄이나 부활, 캠프나 특별기도 기간은 며칠간 도움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생겼죠. 물론 우리 대학교사목부 학생들이 온유의 사정을 알고 정기 봉사를 나갔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더 많이 봉사하고 도움을 주었어요.



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녀온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한 번 가면 3~4명이 함께 2시간 이상 봉사를 해요. 혼자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특히 대화를 나눌 땐 온유의 호흡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온유가 말하거나 놀 때, 또는 잠들었을 때와 같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산소 펌프질의 속도, 횟수 등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은 온유에게 맞춰서 온 집중을 다 해야 해요.

30분 정도 펌프질하면 손과 팔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간 학생들은 30분마다 서로 교대해요. 처음에 온유에 대해 소개받은 학생들은 봉사하러 가겠다고 흔쾌히 말했지만 처음 만나는 날엔 긴장이 된다고 했어요.



‘온유가 얼마나 외로울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진 않을까.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등의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천사 같은 미소로 기쁘게 반기는 온유의 모습에 그런 걱정은 만나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펌프질해 주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늘 명랑하고 온화한 모습을 유지했고, 처음 펌프질이 호흡과 맞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봉사자를 더 배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스스로가 얘기를 잘해주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펌프질하는 학생은 산소를 공급받는 온유와 하나가 되죠. 온유가 갑자기 말을 빨리해도, 게임을 하면서 함께 놀아도, 뭔가를 먹으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

자연스럽게 사랑의 힘에 대해서 목상하게 됩니다. 산소를 넣어준다는 것은 내가 온유의 목숨을 붙잡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처음 봐도 온 힘을 다해서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극 정성으로 펌프질을 해 줍니다. 당장은 봉사 경험이 없어서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숨을 쉬고 땀은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함께 하는 호흡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이도 온유의 숨을 느끼면서 일치하게 됩니다. 온유를 만나고 온 학생들은 그 절대적 연약함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것 같았어요. 많은 이가 온유와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사랑받기에 충분함을** 체험하였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다시금 모든 것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28) 아멘.

복음자리

★ 2025년 2월 2일 |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루카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루카2,30)

새겨보기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에 따라, 만아들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의 제물인 비둘기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시메온과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이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메온과 한나라는 인물의 모델처럼,
기도와 증언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